

과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의 매개효과*

이 민 조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과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에 따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과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사이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정책 결정 상황을 제시하여 예측된 과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결정의 과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예상되는 과급효과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과급효과를 크게 예상하도록 한 조건과 작게 예상하도록 한 조건 사이에서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지 알아보았다. 또한, 예측된 과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 사이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예측된 과급효과의 크기가 작은 조건에 비하여 큰 조건에서 위해/돌봄, 공정/호혜, 그리고 내집단/충성심 관련 도덕적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담감의 매개효과가 내집단/충성심 관련 도덕적 의사결정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과급효과 예측, 의사결정 어려움, 의사결정 책임감, 의사결정 부담감, 정책 결정, 도덕적 의사결정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 교신저자 :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전화 : 02-920-7303, Email : hpark@sungshin.ac.kr

사람들은 자유롭게 어떠한 물건을 선택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나, 의사결정의 자율성으로 인해 결정에 대한 책임감은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Schwartz, 2004).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지들이 많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이를 선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Schwartz(2004)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 다양한 대안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지적 부하가 크게 발생한다고 한다.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하나하나씩 비교하며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선택 및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대안 하나씩을 선택할 때마다 발생할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부하 및 확신의 저하는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더불어,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다양하게 생각해내는 것 역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에 화재가 났던 사건을 통해서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결과들을 예상함으로써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문화재청, 소방당국 등에서는 화재 조기진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고 한다(김병조, 2008; 연합뉴스, 2008). 숭례문의 기와 속에서 불이 난 것이었으므로 기

와를 제거하고 화재의 진원지에 직접 물을 뿌려야만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기와를 파손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결정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과 국보 파손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결과들, 예컨대, 화재 진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사회적 비난과 질책, 기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비용, 복구 공사를 위한 차량 통제로 인해 발생할 주변의 교통 혼잡 등을 예상하느라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그 파급효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인지적 복잡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설선훈, 최인철, 2009). 그리고 변증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극대화 경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을 경험한다(Iyengar, Wells, & Schwartz, 2006; Ma & Roese, 2014; Nenkov, Morrin, Ward, Schwartz, & Hulland, 2008; Ng & Hyine, 2016; Parker, Bruin, & Fischhoff, 2007).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래에 현재와 모순되는 결과를 예상하거나 여러 대안들이 가지는 장단점을 끊임 없이 비교하는 등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치는 경향이 있는데,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 때에도 이렇게 복잡한 생각의 경향성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체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건과도 연결지어 복합적으로 사고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파급효과 예측

파급효과란 호수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물결(ripple)을 일으켜 멀리까지 퍼져가는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 이후 다른 사건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원인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과사건들을 주로 생각하는 등 파급효과를 작고, 좁게 예측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원인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결과사건들까지도 생각하는 등 파급효과를 크고, 넓게 예측한다.

Maddux와 Yuki(2006)의 연구에서는 서양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과 동양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이 파급효과를 서로 다르게 예측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연구 1과 2에서는 하나의 사건(당구 게임에서의 첫 샷, 자연환경이 국립공원으로 바뀔)으로 인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럽계 미국인 연구 참가자들보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참가자들이 원인 사건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중 간접적인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크게 지각하였다.

위와 같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파급효과를 다르게 예측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지적 특성, 즉 분석적으로 사고하는가, 혹은 종합적으로 사고하는가에 따라서도 파급효과가 다르게 예측될 수 있다. 설선희와 최인철(2009)의 연구 1에서는 긍정적인 원인 사건과 부정적인 원인 사건의 파급효과를 분석적-종합적 인지

양식에 따라 다르게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이 포함된 과제 모두에서 한국인 연구 참가자들 가운데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파급효과를 더 크게 예측하였다. 연구 2에서는 분석적인 인지양식을 가진 미국인들과 종합적인 인지양식을 가진 한국인들 간 파급효과 예측의 문화적·인지적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파급거리가 가까운 사건들이 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한국인들은 파급거리가 먼 사건도 발생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등 미국인에 비하여 파급효과의 범위를 더 넓게 내다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특정 문화적 배경이나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급효과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파급효과 예측이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상아, 2016). 연구 참가자들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고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하거나 안전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결정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응답하였다. 그 결과,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물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이에 따라 안전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앞선 연구 결과들을 통해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사건 혹은 결정의 중심대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맥락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다 전체적이고 종합적이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사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처럼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안전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 즉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것이 의사결정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의사결정의 어려움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들에는 너무 많은 수의 선택지와 시간 압박이 있다. Haynes(2009)는 선택지의 수와 시간 제한에 따른 선택의 압박이 선택의 어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그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3개(적은 선택지 조건) 혹은 10개(많은 선택지 조건)의 상품들이 담긴 목록을 제시하고, 제시된 상품들 가운데 연구 참가자가 선택한 상품을 선물로 증정하겠다고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조건에 따라 2분(제한된 시간 조건) 혹은 5분(늘어난 시간 조건) 동안 목록을 살펴보고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선택이 끝난 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만족, 선택 과제의 흥미, 그리고 선택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선택지 수가 많을수록 선택의 어려움과 과제 흥미를 크게 경험하였지만 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또한, 선택지가 많은 조건에서 시간 제한이 있을 때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더 경험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Iyengar와 Lepper(2000)의 연구에서도 연구 참가자들은 6개의 선택지 조건과 30개의 선택지 조건 중에 선택지가 더 많은 30개 조건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더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도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다른 정도로 경험할 수 있다. Frost와 Shows(1993)는 우유부단할수록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문제를 겪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Saka와 Kelly(2008)는 정서적이고 성격적인 측면을 하위 요인으로 고려하여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직업관련 의사결정 어려움의 하위 요인들로 비관적인 세계관, 불안, 그리고 자기 및 정체성과 관련한 요소들이 설정되었는데, 그 중 자기 및 정체성 요인에 포함된 일반적인 불안과 자존감 요인이 성격적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즉, 일반 불안이 높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관련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크게 지각한다고 측정되었다.

요컨대, 위와 같이 맥락적 특성과 개인의 성격 특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인지적인 특성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질지 예측하는 인지과정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이기를 바라면서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파급될 수 있는 결과들을 예상해본다. 이와 관련하여, Ng와 Hyine(2016)의 연구에서는 미래에 현재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지 혹은 모순적으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하는 것과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문화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유럽 문화에 속한 사람들보다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 2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유럽 문화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모순적으로 사고하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경험하며,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 3에서는 모순적인 사고를 하도록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이것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유발시키는지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미래에 더 모순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고하였다. 비록 파급효과 예측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Ng와 Hyine(2016)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미래에 발생할 결과들을 복잡하게 예상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극대화자들(maximizers)은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의사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Iyengar et al., 2006; Ma & Roese, 2014). 극대화

자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의 하위 구성요소에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극대화자들이 가지는 성향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Nenkov et al., 2008). 또한, 극대화자들은 극대화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루고 피한다(Parker et al., 2007). 즉, 이들은 자신의 결정으로 발생할 좋은 결과들을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탐색하고, 다른 의사결정의 대안들이 낼 수 있는 결과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며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복잡한 인지적 과정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치는 모순적 사고와 극대화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예상하는 복잡한 인지 활동, 즉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것(설선훈, 최인철, 2009)도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의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더 느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급효과 예측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파급효과 예측은 책임감(accountability)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책임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 느낌,

그리고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하는 암묵적이거나 외현적인 기대이다(Lerner & Tetlock, 1999). Maddux와 Yuki(2006)의 연구를 통해 파급효과 예측과 결과에 대한 책임감 간의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이들은 시나리오 속 연구 참가자가 야기한 사건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는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파급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예측하는 일본인 연구 참가자들이 미국인 연구 참가자들에 비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될 간접적인 결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상아(2016)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지각했으며, 이에 따라 위험 감수 의사결정을 덜 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것이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크게 지각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지각하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인지적인 노력을 들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책임감을 느낄 때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편향들이 감소한다(Lerner & Tetlock, 1999). 예를 들어, 관찰자가 판단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기질적인 귀인을 크게 하는 경향성이 감소하였고, 구매자들이 제품 선택을 위해 제품의 정보들에 대해 분석할 때 어림법(heuristic)에 근거한 처리를 덜 하였다(Doney & Armstrong, 1996; Wells, Petty,

Harkins, Kagehiro, & Harvey, 1977). 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림법을 통한 가벼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의사결정에서의 책임감은 인지적인 노력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을 감소시킨다. 한편, 어림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인지적인 부하를 경험해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Nordstrom, Williams, & LeBreton, 1996; Shah & Oppenheimer, 200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은 인지적 노력을 줄여주는 어림법을 덜 사용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어렵게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매개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2에서는 파급효과 예측에 따른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개관

연구 1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의사결정 사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측정된 예상 파급효과가 연구 참가자들이 느낀 의사결정의 어려움 수준과 관련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가상의 정책 결정 상황에서 정책 결정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2에서는 예측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파급효과 예측이 의사결정 어려움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큰 파급효과 예측 조

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작은 파급효과 예측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보다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즉, 큰 파급효과 예측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작은 파급효과 예측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보다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 제시된 정책 결정 상황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시나리오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하고자 하였고, 연구 1의 결과가 어느 범위까지 일반화 가능한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1

방 법

예비 연구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가상의 정책 결정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는 각각 사형제도 폐지 안전과 노후 원자력 발전소 지속 가동 안전이다. 이 사안들을 시나리오에 사용한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고, 정책 결정이라는 상황이 어색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친숙한 주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 윤리와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사

용하는 것은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과제는 설선혜와 최인철(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와 비슷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사형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건들을 (1) 사형에 처해질 범죄자,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차원에서부터 (2) 사법 기관 차원, (3) 도시 및 지역사회 차원, (4) 국가 차원, 그리고 (5) 세계 차원까지 총 5개 차원의 사건들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다섯 명의 사회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각 차원과 관련되어 발생될 것이라 여겨지는 사건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예비 연구를 위한 사건 목록을 구성하였다. 또한, 노후 원자력 발전소 지속 가동 시나리오 역시 안전 통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건들을 (1) 발전소 직원 및 가족 차원, (2) 발전소 기관 차원, (3) 도시 및 지역사회 차원, (4) 국가 차원, 그리고 (5) 세계 차원에 따라 생성하도록 하여 예비 연구를 위한 사건 목록을 구성하였다. 사형제도 폐지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면, 범죄자,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차원의 사건에는 “범죄자들의 인권이 보다 존중될 것이다”, 사법 기관 차원의 사건에는 “법원에서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할 것이다”, 도시 및 지역사회 차원에는 “지역사회의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사건에는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차원에는 “세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가 포함되었다.

구성된 사건 목록을 기초로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의 학부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 연구 참가자들 중 20명은 사형제도 폐지 안전과 노후 원자력 발전소 지속 가동 안전 가운데 하나를 읽고 난 후

안전 통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건들의 정서가 를 평정하였고, 나머지 20명은 파급 거리를 평정하였다. 정서가 평정은 각 사건이 부정적 인지, 중립적인지, 혹은 긍정적인지 표시하는 것이었고, 파급 거리 평정은 각 사건이 원인 사건(즉, 사형제도 폐지나 노후 원자력 발전소 지속 가동 안전을 통과 시키는 것)과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인지 평정하는 것이었다(0: 원인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1: 매우 간접적이다, 7: 매우 직접적이다).

예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사건 항목의 정서가가 중립적인 것만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사건의 정서가가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 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묘사한 항목들이 많다면 안전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의사결정이 쉬울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기술한 항목들이 많다면 안전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 또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립적인 정서가를 가진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파급 거리가 가까운 항목들과 중간인 항목들, 그리고 먼 항목들의 개수를 서로 비슷하도록 구성하였다. 사형제도 폐지 안전의 항목들을 예로 들면, 파급 거리가 가까운 항목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사회에 대한 증오를 가질 것이다”, 중간인 항목에는 “법원에서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할 것이다”, 그리고 먼 항목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평균수명이 감소할 것이다”가 있다.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를 통해 제작된 파

급효과의 크기 예측 과제를 사용하여 연구 참가자들이 예측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의 학부생 131명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였다.¹⁾ 학교 SNS 커뮤니티 등에 연구 참가자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학교 게시판에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여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28세였고, 평균 연령은 20.13세였다($SD=1.89$). 본 연구에는 대략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사례로 현금 3천원을 지급하였다.

측정 도구

파급효과의 크기 예측 과제

예측되는 파급효과의 크기는 예비 연구를 통해 구성된 파급효과의 크기 예측 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사형제도 폐지 안전과 노후 원자력 발전소 지속 가동 안전의 시나리오에서 각각 제시된 사건 목록 가운데 안전의 통과로 인하여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1)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계산하여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134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었다. 총 142명의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나, 반응의 무차별성(indifferences of responses)을 띠거나 사후설명에서 연구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채 응답한 것으로 드러난 연구 참가자 등 11명의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였다.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목록의 항목들이 안전 통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원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거하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는 정보의 양과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설선훈, 최인철, 2009).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목록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항목들을 제거하는 반면, 파급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항목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거하기 방법은 파급효과를 다루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측정법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 안전에 대한 파급효과 크기 예측 과제를 마치고 난 후, 안전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시나리오의 제시 순서는 연구 참가자들 간 상쇄평형화(counter-balancing) 되었다.

의사결정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성된 3개의 문항들과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Haynes, 2009; Ng & Hynie, 2014; Zhang & Mittal, 2005). 문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앞의 정책 결정이 귀하께 얼마나 어려웠습니까?”(1: 전혀 어렵지 않았다, 7: 매우 어려웠다), (2) “귀하께서는 앞의 정책 결정 시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1: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7: 매우 고민했다), (3) “귀하께서는 앞의 정책 결정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느끼셨습니까?”(1: 전혀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느꼈다, 7: 매우 오래 걸렸다고 느꼈다)

연구 설계 및 절차

소집단으로 질문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먼저 연구 목적과 내용이 명시된 연구 참가 동의서를 읽고, 연구 참가에 동의할 경우 서명을 하였다. 동의서에 서명한 연구 참가자들에 한해 질문지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정책안을 주의 깊게 읽도록 지시하고, 연구 참가자들이 해당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해보도록 하였다. 정책안을 읽고 나면 파급효과 크기 예측 과제를 실시하고, 안전 통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연구 참가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동안 경험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문항들에 응답하고 연구를 마쳤다. 질문지 작성을 마친 연구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결과 및 논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분석에 앞서, 파급효과 크기 예측 과제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각 시나리오 별 과제 항목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사형제도 폐지 시나리오에서 .87, 노후 원자력 발전소 지속 가동 시나리오에서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 어려움에 대한 내적합치도를 검증한 결과, 사형제도 폐지 시나리오에서 .91, 노후 원자력 발전소 지속

가동 시나리오에서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을 통해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탐색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후 두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들을 평균하여 구성한 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²⁾.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 점수는 제거가 되지 않은 항목 수를 전체 항목수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이 점수가 클수록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의사결정의 어려움 점수는 측정된 세 개의 문항을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의 어려움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의 변수들 중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에서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는 안전 통과 결정으로 얼마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인지에 따라 분류해놓은 항목들을 평균한 점수이다. 전체점수는 파급 거리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항목들에 대해 평균한 점수를 나타낸다. 파급 거리의 점수들을 살펴보면, 파급 거리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이 예측한 파급효과의 크기가 달라진다.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크게 파급효과를 예측하였고 ($M=.94$, $SD=.08$),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작게 파급효과를 예측하였다.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의 관계

연구 1에서는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즉,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연구 참가자들은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였다($r=.19$, $p<.05$). 파급사건들을 거리에 따라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았을 때, 중간 거리에서는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20$, $p<.05$). 그러나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에서는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다(각각 $r=.17$, $p=.05$; $r=.14$, $p=.11$).

가까운 거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관찰된 이유는 가까운 거리의 분산이 .08로 작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가까운 거리의 항목들이 안전 통과라는 사건으로 인해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N=131$)

변수명		M	SD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	전체 점수	.72	.10
	가까운 거리	.94	.08
	중간 거리	.76	.12
	먼 거리	.50	.14
의사결정의 어려움		3.97	1.08

2)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두 시나리오는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시나리오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안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두 시나리오 간 주요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는 .55($p<.001$),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15($p=.08$)이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 두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지표 분석과 관련한 제한점은 종합 논의에서 다루었다.

표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N=131)

	1	2	3	4	5
1. 전체 파급효과 예측	-				
2. 가까운 거리의 파급효과 예측	.74**	-			
3. 중간 거리의 파급효과 예측	.93**	.71**	-		
4. 먼 거리의 파급효과 예측	.88**	.42**	.67**	-	
5. 의사결정의 어려움	.19*	.17	.20*	.14	-

* $p < .05$, ** $p < .01$.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가까운 거리의 사건들이 안전 통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을 것이다. 즉, 가까운 거리의 사건들에서 연구 참가자들 간 응답 차이가 작았던 것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의 사건 관련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간 상관의 유의미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먼 거리의 문항들은 안전 통과와 매우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는 상관없는 사건들이라고 쉽게 생각했을 수 있다. 즉,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파급효과 항목들은 각각 원인 사건과 매우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쉽게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간 거리 파급효과 항목들은 관점에 따라 원인 사건과 관련되어 보일 수도 있고 관련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파급 거리의 항목들보다 중간 거리의 파급효과 항목들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결과가 산출되었을 것이다.

연구 2

연구 1에서는 결정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는가에 따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 관찰된 상관은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파급효과를 다양하게 예측하게 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인 간 인과적 방향성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연구 1은 연구 참가자 모집의 용이성으로 인해 여자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³⁾, 연구 2에서는 남

3) 의사결정 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더 윤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결정을 내리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은 덜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강혜련, 김예송, 임희정, 2002; Byrnes, Miller, & Schafer, 1999; Powell & Ansic, 1997). 또한, 정책 결정 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보다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는 결정을 더 많이 내린다고 한다(Poggione, 2004). 본 연구의 초점인 의사결정 어려움에 대해서는 성차를 밝히는 연

너 대학생 모두를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을 통해 검증된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예측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파급효과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도록 유도되었을 때 동일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2에서는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사이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여, 파급효과 예측이 의사결정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밝힘으로써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2에서는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이는 연구 1의 정책 결정에 비하여 도덕적 의사결정이 보다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경험하는 결정이고, 대학생 연구 참가자들이 정책 결정보다는 몰입하여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 1의 결과가 정책 결정 상황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은 Haidt와 Graham (2007)의 도덕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 Theory)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인류학, 진화론 등과 같은 여러 학문 사이에서 도덕성의

구가 수행된 바 없으나, 의사결정 결과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성차가 존재함을 고려하였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서도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연구 1의 결과를 남성 집단에 일반화하기에 앞서, 성차의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남녀 모두를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였다.

내용과 도덕성의 영역에 대한 설명은 혼재되어 있다. 도덕 기반 이론은 여러 학문에 혼재되어 있는 설명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이 이론에서는 도덕적 가치의 중심을 개인에게 두는가, 혹은 집단에게 두는가에 따라서 도덕적 영역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도덕적 영역의 ‘내용’이 아닌 도덕적 시스템의 ‘기능’을 중심으로 도덕적 영역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인을 도덕적 가치의 중심으로 두는 접근을 개인화 접근(individualizing approach)이라고 하고, 집단을 도덕적 가치의 중심으로 두는 접근을 묶인 접근(binding approach)이라고 한다. 개인화 접근에는 위해/돌봄(Harm/Care) 영역과 공정/호혜(Fairness/Reciprocity) 영역이 포함되고, 묶인 접근에는 내집단/충성심(Ingroup/Loyalty) 영역, 권위/존경(Authority/Respect) 영역, 그리고 순수/신성(Purity/Sanctity) 영역이 포함된다. 위해/돌봄 영역에서는 위해로부터 약한 개인들을 돌보고 배려하며 보호하는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공정/호혜 영역에서는 행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내집단/충성심 영역은 집단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자기 희생 등을 중요시하는 도덕 영역이고, 권위/존경 영역은 집단 내 권위를 바탕으로 한 복종을 중요시하는 도덕 영역이며, 순수/신성 영역은 종교적인 법칙에서 큰 역할을 하는 순수성과 신성함을 중요시하는 도덕 영역이다. 위해/돌봄 영역과 공정/호혜 영역은 개인의 안위, 권리 및 복지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적 접근에 포함되었고, 내집단/충성심 영역, 권위/존경 영역 및 순수/신성 영역은 집단의 조화, 질서 및 집단을 유지하는 신성한 가치 보호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묶인 접근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영역들은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나, 각 영역이 중요시되는 정도는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 문화권에서보다 묶인 기반의 도덕적 영역을 더 중요시하지만, 개인화 기반의 도덕적 영역은 범문화권적으로 중요시된다(Haidt & Joseph, 2007; Graham, Nosek, Haidt, Iyer, Koleva, & Ditto, 2011). 또한, 묶인 기반의 도덕적 영역은 정치적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시하며, 개인화 기반의 도덕적 영역은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중요시한다(Graham, Haidt, & Nosek, 2009).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할 때 도덕 기반 이론에서 다루는 5개의 도덕적 영역을 모두 포함시켰다. 한국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위에 기술된 모든 도덕적 영역이 중요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 법

예비 연구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달리, 조건에 따라 파급효과의 크기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도록 실험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파급효과 예측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파급효과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점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되는 파급효과 크기 조건 별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연구 참가자는 이 시나리오를 통해 파급효과

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도록 유도된다. 이에 따라 순간적으로 파급효과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는 생각의 틀이 활성화되고, 이처럼 활성화된 생각의 틀은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조건에 따라 파급효과의 크기가 크거나 작은 사건을 제시하고, 연구 참가자들로 하여금 해당 사건의 파급효과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이후의 의사결정 시에도 파급효과를 각각 크거나 작게 예상하도록 점화하였다. 따라서 예상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될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에서는 총 16개의 사건들에 대한 파급력을 측정하였다. 예비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과 가장 작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선택하여, 실험적으로 조작하는 과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예비 연구에 제시되었던 16개의 사건들의 예로는 “귀하께서 학기 중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시기로 한다면, 이러한 결정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가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 사건의 파급력을 리커트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답하였다(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매우 영향을 미친다).

예비 연구를 위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학부생 3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남성 연구 참가자는 16명, 여성 연구 참가자는 14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22.6세($SD=2.25$)였다. 10점 척도의 중간점인 5.5와 가장 차이가 나는 사건들을 가장 작은 파급력과 큰 파급력이 예상된다고 평정된 사건들로 선택하였다. 일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레몬 향 핸드크림을 사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가장 작은 파

급력을 가진 사건으로 선택되었고($M=2.83$, $t(29)=-8.02$, $p<.001$), 전과를 하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사건으로 선택되었다($M=9.07$, $t(29)=21.53$, $p<.001$).

본 연구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54명의 남녀 학부생들(남자 73명, 여자 8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⁴⁾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이들에게 질문지를 작성하

4)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5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한 후 독립 표본 t검증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각 조건 당 최소 88명, 총 176명의 연구 참가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주제에 따라 파급효과를 예상하거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개인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인지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깊은 처리를 한다(Howard-Pitney, Borgida, & Omoto, 1986). 연구 1의 정책 결정보다 연구 2의 도덕적 의사결정이 연구 참가자 개인과 더 관련된 사안일 것이므로, 이처럼 개인과 보다 관련이 있는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결정의 파급효과를 더 크게 예측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관여도를 고려하여 효과크기를 중간 크기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이들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196명의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 결과, 무차별적인 응답을 하거나 실험적 조작을 위한 과제와 종속변수 측정을 위한 과제를 작성하지 않은 연구 참가자들 총 42명의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도록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27세였고, 평균 연령은 21.44세였다($SD=2.25$). 파급효과를 작게 예측하는 조건에는 86명, 크게 예측하는 조건에는 68명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략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사례로 현금 2천원을 지급하였다.

측정 도구

예상되는 파급효과의 크기 조작

예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조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앞선 예비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 2에서는 예측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조작하기 위해 점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할당된 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통해 파급효과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도록 유도된다. 이에 따라 순간적으로 파급효과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는 생각의 틀이 활성화되고, 이와 같이 활성화된 생각의 틀은 이후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 조건에 해당되는 시나리오를 한 단락 분량으로 작성하였다. 각 조건에서 제시되었던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은 파급효과 예측 조건: “귀하께서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 귀하께서는 핸드크림을 구입하기 위해 화장품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한 향이 나는 핸드크림 중에 세일하는 상품은 레몬 향이 나는 핸드크림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좋아하는 향은 세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향의 핸드크림 대신 레몬 향이 나는

핸드크림을 살 지 고민 중입니다.”

큰 파급효과 예측 조건: “귀하께서는 현재 대학생이십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귀하의 학과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학과 선배들과 다른 학과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OO학과를 알게 되었고, 그 학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현재 전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를 하려면 이번 학기에 3학점짜리 강좌를 7개 수강하여 21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평점이 3.90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하께서는 전과를 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큰 파급효과 조건과 작은 파급효과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조건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를 읽고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사건 2개와 부정적인 사건 2개를 각각 작성하였다. 예상되는 파급사건이 긍정적인 특성만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특성만을 가지지 않도록 정서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을 동일한 개수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쓰기 과제를 마치고 난 후, 의도했던 바와 같이 작은 파급효과 조건에서보다 큰 파급효과 조건에서 사건의 파급력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작 점검 문항은 예비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사건의 파급력 문항과 같았으며,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은 리커트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매우 영향을 미친다).

의사결정의 어려움 측정

연구 1에서는 정책 결정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어려움을 측정하였다면 연구 2에서는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정책 결정은 국회의원처럼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의사결정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은 도덕 기반 이론(Graham et al., 2009; Haidt & Graham, 2007; Graham & Joseph, 2007)의 5개 영역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각 도덕 영역의 시나리오들은 Graham 등(2009)의 연구에서 도덕적 갈등상황으로 제시되었던 시나리오를 번안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위해/돌봄 영역에는 큰 잘못을 저지른 친동생에게 물리적 처벌을 가할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을 제시하였고, 공정/호혜 영역에는 F학점을 받지 않기 위해 부정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내집단/충성심 영역에는 고시 공부를 위해 가족들 및 가까운 친구들에게 1년 동안 연락을 끊을 지 결정하는 상황을 제시하였고, 권위/존경 영역에는 콩트의 재미를 위해 형(오빠)의 뺨을 때릴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수/신성 영역에는 자연사한 애완용 닭을 요리해 먹을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문항에 응답하였다. 의사결정의 어려움 문항은 연구 1에서 사용된 문항과 동일하였고, 응답은 리커트 10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의사결정의 어려움 측정과 더불어 자신의 의사결정이 만족스러웠는지 리커트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앞의 결정이 만족스러웠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매우 동의한다).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

연구 참가자들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고 난 후,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 문항에 응답하였다.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이 총 2 문항이었다: (1) “앞서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2) “앞서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 위의 문항들에 대하여 연구 참가자들은 리커트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매우 동의한다).

연구 설계 및 절차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 목적과 내용이 기술된 연구 참가 동의서를 읽고, 연구 참가에 동의할 경우 서명을 하였다. 동의서에 서명한 연구 참가자들에 한해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서로 구분되는 2개의 다른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그 2개의 연구는 각각 예측되는 파급효과의 크기 조작 과제와 의사결정의 어려움 측정 과제였다.

먼저, 파급효과의 크기를 조작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무선적으로 큰 파급효과 예측 조건과 작은 파급효과 예측 조건에 할당되었고, 조건에 따라 다른 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쓰기 과제를 통해 파급효과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는 생각의 틀이 순간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이것이 의사결정을 내

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의사결정 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도덕적 의사결정 시나리오를 주의 깊게 읽고 갈등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경험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이후, 연구 참가자들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는지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연구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사후설명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결과 및 논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연구 2의 본 분석에 앞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한 세 문항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각 도덕 시나리오별 의사결정의 어려움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위해/돌봄 영역 시나리오에서 .94, 공정/호혜 영역 시나리오에서 .95, 내집단/충성심 영역 시나리오에서 .94, 권위/존경 영역 시나리오에서 .96, 순수/신성 영역 시나리오에서 .96이었다. 이와 같이 내적 합치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세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의사결정의 어려움 점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측정한 두 문항들의 신뢰도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을 때 다섯 시나리오에서 모두 내적합치도가 .33이하였다. 그러므로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

표 3. 시나리오별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N=154)

	위해/돌봄	공정/호혜	내집단/충성심	권위/존경	순수/신성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	7.73 (2.02)	8.03 (2.11)	7.79 (2.09)	6.01 (2.91)	7.23 (2.59)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	4.40 (2.33)	4.73 (2.83)	5.05 (2.66)	3.74 (2.50)	2.80 (2.17)
의사결정의 어려움	4.36 (2.45)	4.36 (2.45)	4.73 (2.72)	3.55 (2.34)	2.25 (1.71)

주. 괄호 밖의 값은 평균, 괄호 안에 있는 값은 표준편차임.

임감 점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져, 두 변수를 각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책임감을 측정한 첫 번째 문항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 변수로 명명하고 두 번째 문항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 변수로 명명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표 3에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시나리오 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들은 공정/호혜 영역에서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장 크게 보고하였고($M=8.03$, $SD=2.11$), 권위/존경 영역에서 가장 작게 보고하였다($M=6.01$, $SD=2.91$).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내집단/충성심에서 가장 크게 보고하였고($M=5.05$, $SD=2.66$), 순수/신성 영역에서 가장 작게 보고하였다($M=2.80$, $SD=2.17$).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내집단/충성심 영역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크게 보고하였고($M=4.73$, $SD=2.72$), 순수/신성 영역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작게 보고하였다($M=2.25$, $SD=1.71$).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연구 2에서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다르게 예측하도록 조작하고, 그에 따라 두 조건에서 의사결정 어려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 2에서 사용된 조작 과제가 의도했던 바와 같이 파급효과의 크기

를 다르게 예측하도록 유도하였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파급효과의 크기를 작게 예측하도록 유도한 조건($M=4.56$, $SD=2.14$; 이하 작은 조건)보다 크게 예측하도록 유도한 조건($M=7.97$, $SD=1.25$; 이하 큰 조건)에서 제시된 사건의 영향력을 유의미하게 더 크게 보고하였다, $t(140.68)=-12.37$, $p<.001$. 즉, 파급효과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도록 유도했던 실험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파급효과의 크기 예측에 따른 의사결정 어려움의 차이

먼저, 연구 2의 첫 번째 가설, 즉 작은 파급효과 조건에 비하여 큰 파급효과 조건에서 의사결정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해/돌봄 영역, 공정/호혜 영역, 그리고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 가설과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표 4). 구체적으로, 위해/돌봄 영역에서 작은 조건($M=3.93$, $SD=2.46$)보다 큰 조건($M=4.91$, $SD=2.33$)의 연구 참가자들이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더 크게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t(152)=-2.53$, $p=.013$, 공정/호혜 영역에서 작은 조건($M=3.93$, $SD=2.46$)보다 큰 조건($M=4.91$, $SD=2.33$)의 연구 참가

표 4.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의 크기 예측에 따른 의사결정 어려움의 차이 ($N=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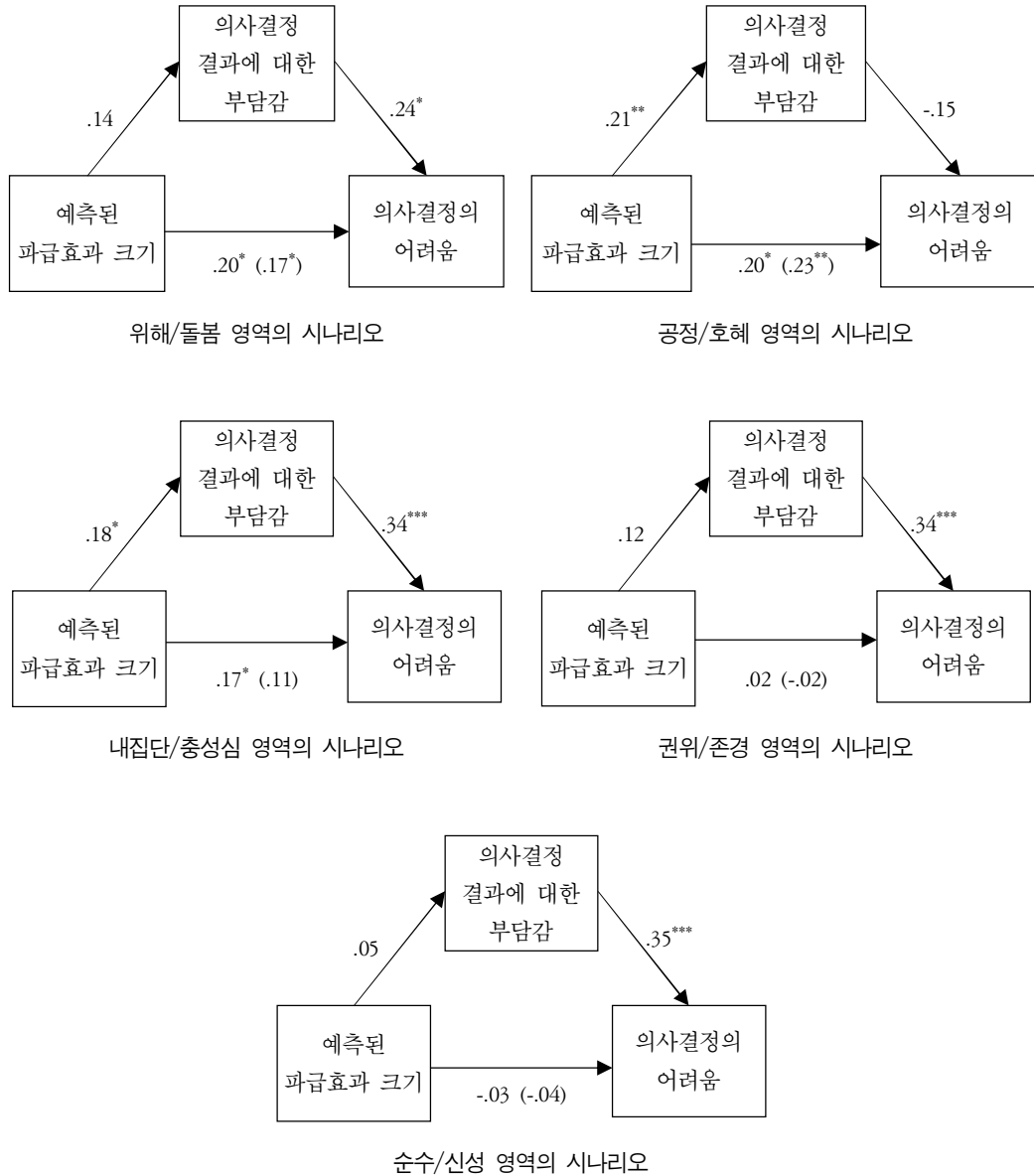
시나리오	조건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위해/돌봄	작은 파급효과 예측	86	3.93	2.46	152	-2.53*
	큰 파급효과 예측	68	4.91	2.33		
공정/호혜	작은 파급효과 예측	86	3.93	2.46	152	-2.53*
	큰 파급효과 예측	68	4.91	2.33		
내집단/충성심	작은 파급효과 예측	86	4.32	2.83	152	-2.12*
	큰 파급효과 예측	68	5.25	2.51		
권위/존경	작은 파급효과 예측	86	3.51	2.34	152	-0.25
	큰 파급효과 예측	68	3.60	2.35		
순수/신성	작은 파급효과 예측	86	2.29	1.80	152	0.34
	큰 파급효과 예측	68	2.20	1.59		

자들이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더 크게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t(152)=-2.53$, $p=.013$. 또한,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 역시 작은 조건($M=4.32$, $SD=2.83$)보다 큰 조건($M=5.25$, $SD=2.51$)의 연구 참가자들이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더 크게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t(152)=-2.12$, $p<.05$. 그러나 권위/존경 영역과 순수/신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ts(152)<.34$, $ps>.05$.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의 관계에서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의 매개효과

연구 2의 두 번째 목표는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부담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접근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 방법을 따르기 전에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실험적으로 조작된 변수이기 때문에 더미변수화하였다. 즉, 작은 크기 조건을 0, 큰 크기 조건을 1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1)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예언하는지 알아보고, (2)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매개변수인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부담감을 예언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후, (3)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를 통제하였을 때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부담감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예언하는지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4)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예언하는 효과가 통제하지 않은 총효과보다 유의하게 작아지면 부분매개를 하는 것이고, 매개변수를 통제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한 부트스트래핑을



주 1. 제시된 표준화계수 중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예측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의미하는 계수임.

주 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시나리오별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의 관계에서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의 매개모형

5,000개의 표본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와 그 유의성은 Hayes(2013)의 PROCESS macro ver.2.16을 활용하여 SPSS ver.22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책임감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어떠한 도덕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하여 유의한 매개효과는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만 관찰되었다(그림 1).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큰 집단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경험하였고,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더 경험하였다. 그리고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를 통제하였을 때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정적으로 예언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통제하였을 때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이상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즉,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만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결과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95% 신뢰구간 [.04, .73]에서 .33의 효과크기(Boot SE=.17)로 유의하였다. 즉,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하는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작게 예측하는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보다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만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더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을 더 크게 느꼈다.

종합 논의

본 논문에서는 파급효과 예측에 따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위의 두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사이의 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결정 영역에서도 나타나는지 두 개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가상의 정책 결정 상황에서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증가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구 참가자들이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안전을 통과시킬 것인지 결정할 때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전 통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을 생각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변증법적 인지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극대화자들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Iyengar et al., 2006; Ma & Roesse, 2014; Ng & Hyine, 2016).

연구 2에서는 집화 과제를 통해 파급효과의 크기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도록 실험적으로 유도하여,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변수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의 정책 결정 상황에서 관찰된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가 연구 2의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반복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한 연구 참가자들이 작게 예측한 연구 참가자들보다 위해/돌봄 영역, 공정/호혜 영역, 내집단/충성심 영역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

을 더 보고하여, 파급효과 예측이 의사결정 어려움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존경 영역과 순수/신성 영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두 영역의 시나리오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만큼 연구 참가자들이 몰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한 연구 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내집단/충성심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더 크게 보고하였다. 즉,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의 매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부담감의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연구를 통해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연구된 바가 많지 않았던 파급효과 예측이 의사결정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는 데 있다. 파급효과 예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파급효과 예측과 개인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이다(설선헌, 최인철, 2009; Maddux & Yuki, 2006). 최근에 파급효과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김상아, 2016), 본 연구와 같이 파급효과를 크거나 작게 예측하도록 실험적으로 유도하여 의사결정 어려움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던 연구는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의사결정 연구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동안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보다는 어떠한 선택지를 선택하는지 혹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와 같은 결과적인 행동 변수가 주요한

관심대상이었다. 특히,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 영역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정서, 정보 처리기제, 해석 수준(construal level) 및 사고방식(mindset)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특정 제품을 선택할 의도를 가지는지, 선호하는지, 혹은 선택하는지와 같은 행동의 결과를 중요하게 다루었다(Baskin, Wakslak, Trope, & Novemsky, 2014; Fishback, Ratner, & Zhang, 2011; Han, Duhacker, & Agrawal, 2014; Raghunathan & Pham, 1999;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Weaver, Daniloski, Schwarz, & Cottone, 2014). 그러나 본 연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변수로서 파급효과 예측,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측정하여, 기존에는 부가적이거나 보조적으로 다루어지던 의사결정과 관련한 심리적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변수로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맥락적 요인과 개인 성격 요인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인지적 요인을 설정했다는 데에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의 관계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이 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연구 2에서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큰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작은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에 비해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유의하게 더 크게 경험하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즉, 큰 파급효과를 예측하도록 유도되었던 조건에서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들에 책임지는 것이 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경험하였던 것이다. 연구 2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연구 2에서 부수적으로 측정한 의

사결정의 만족감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r_{위해/돌봄} = -.32$, $r_{내집단/충성심} = -.39$, $r_{권위/존경} = -.49$, $r_{신생/순수} = -.72$, $p \leq .001$; $r_{공정/호혜} = .05$, $p > .05$). 즉, 의사결정이 어려웠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설령 그 결정이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힘들다(Iyengar et al., 2006). 이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 유예, 결정 번복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가치 및 조건을 중심으로 결정사안을 단순화하는 작업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동안 경험하는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연구 2에서는 도덕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파급효과 예측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두 변수의 관계가 여러 의사결정 상황으로 일반화 가능한지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1의 정책 결정은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며, 연구 2의 도덕적 의사결정은 정책 결정에 비해 비교적 자기 자신과 더 가까운 영역의 의사결정인 동시에 보다 일상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지만, 두 상황에서 모두 파급효과 예측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연구 1과 2 모두에 측정 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두 연구에서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의사결정의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자기보고법을 사용할 경

우 연구 상황 자체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반응성으로 인해 응답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행동적인 측정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소요된 반응시간의 길이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거나, 마우스 궤적 추적방법(mouse-tracking method; 신흥임, 2015; 신흥임, 김주영, 2015; Dale, Kehoe, & Spivey, 2009; Freeman & Ambady, 2009, 2010; Yu, Wang, Wang, & Bastin, 2012)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의 마우스 궤적을 분석하여 실제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2에서 예상되는 파급효과 크기를 점화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시나리오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시나리오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 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즉, 파급효과 크기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접한 연구 참가자들에 비하여 파급효과 크기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접한 연구 참가자들이 이후 제시된 일련의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것이 반드시 파급효과 크기 점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사용된 점화 기법은 사고방식 점화(mindset priming)에 해당되는 것인 바,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시나리오를 통해 각각 독립변수를 조작하고 종속변수를 측정한 것이 점화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점화 기법은 개념적 점화(conceptual priming), 사고방식 점화 및 목표 점화(goal priming)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사고방식 점화는 하나의 맥락에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심적 절차나 세상을 이해하는 방

식을 활성화시킨 것이 다른 맥락으로 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Bargh & Chartrand, 2000; Oyserman & Lee, 2008). 본 연구에서는 사고방식 점화 절차를 충실히 따라, 대학에서의 전공을 바꾸는 일이나 핸드크림을 구입하는 일과 같이 파급효과가 크거나 작은 사건을 각각 접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이후 발생할 사건들을 더 다양하거나 덜 다양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점화가 의사결정 시의 책임감이나 부담감 지각 및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점화 조작의 효과성을 점검하였을 때에도, 연구에서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큰 파급사건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작은 파급사건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에 비하여 더 큰 파급효과를 예상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크거나 작은 파급효과를 예상하도록 사고방식을 점화하였던 것은 연구에서 의도하였던 대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연구 2의 결과가 가설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2에서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크면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경험하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책임감과 관련해서는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특히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설명하지 못했다. 반면에,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책임감과 부담감 간 결과 차이는 측정 문항의 언어적 표현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 ‘책임감’으로 재명명된

“앞서 내린 결정의 결과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문항은 비교적 직관적으로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감’으로 명명된 “앞서 내린 결정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문항은 먼저 연구 참가자들이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처럼 책임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는지가 가능하여 답해야 했다. 그러므로 점화되었던 파급효과 예측의 영향은 의사결정 책임자로서 의사결정의 결과를 재검토하게 하였던 부담감 측정 문항에 더 잘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실제로 구분이 되는 변수인지, 아니면 하나의 변수로 통합할 수 있는 변수인지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주제에 대한 개인적 관여도(personal involvement)에 따라서도 의사결정의 파급효과 예측이 달라지거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책임감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연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적 관여도는 대상에 주의를 주거나 이해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elsi & Olson, 1988), 의사결정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의 두 연구는 모두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활용한 결과와 연구 참가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와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달라 이로 인한 성차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보다 여성이 전반적으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개인적 관여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관련 의사결정 시의 경험이 남녀 간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적 관여도에 따른 결과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2의 도덕 영역 별 결과 차이가 시나리오 몰입 용이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다.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시 경험한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크다는 결과는 위해/돌봄 영역, 공정/호혜 영역, 그리고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만 관찰되었다. Graham과 동료들(2009)에 따르면, 위해/돌봄 영역과 공정/호혜 영역은 범문화적으로 중요시되는 도덕 영역인 반면, 내집단/충성심 영역, 권위/존경 영역, 및 순수/신성 영역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서구문화에서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발견되는 도덕 영역이다 (Graham et al., 2009, 2011). 그러므로 한국인 대상의 본 연구에서는 다섯 도덕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관찰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위해/돌봄 영역, 공정/호혜 영역 및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만 파급효과 예측 조작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권위/존경 영역의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친척들 앞에서 콩트를 하는 상황이 현실적이지 않았고, 순수/신성 영역의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병아리에서부터 닭으로 키우는 상황 또한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기에 연구 참가자들이 몰입하기 어려워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 몰입 용이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을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설명도 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서구화된 교육제도와 정치 시스템 등을 통해 점점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한규석, 신수진, 1999). 권위/존경 영역은 관계의 수직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Graham

& Joseph, 2007), 이러한 수직-수평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순수/신성 영역은 생명을 순수하고 중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된 도덕 영역이기 때문에(Graham & Joseph, 2007), 연구 참가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순수/신성 영역의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유의한 매개효과는 오직 내집단/충성심 영역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내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허태균, 2015), 회계사, 공무원 등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권혜민, 2017), 주어진 상황에 몰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후 설명 시 다수의 연구 참가자들로부터 고시 공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내집단/충성심 영역의 시나리오가 매우 현실적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후속 연구에서 조금 더 현실성을 갖춘 상황을 제시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발견될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도덕 영역별로 예측되는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의 어려움 간의 관계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내집단/충성심 영역, 권위/존경 영역 및 순수/신성 영역을 서구 문화권에서보다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커지는 관계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모든 도덕 영역에 걸쳐 나타나지만, 서구 문화권에서는 내집단/충성심 영역, 권위/존경 영역 및 순수/신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혜련, 김예송, 임희정 (2002). 비즈니스 상황의 윤리적 판단에 관한 남녀 비교 실증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관리연구, 26, 1-24.
- 권혜민 (2017. 4. 5). “청년 공시생 25만명 시대...공무원시험 경제 손실 17조원”, 머니투데이. <https://goo.gl/5fGJIF>.
- 김병조 (2008. 02. 11). “송례문 화재 5시간...조기진압 왜 늦어졌나?”, 연합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8687.html#csidxa7a8f3b4c6b1118a1297533e524b0ad.
- 김상아 (2016). 파급효과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결정.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설선훈, 최인철 (2009).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과 파급효과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9-38.
- 신홍임 (2015). 문화성향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67-96.
- 신홍임, 김주영 (2015). 신체의 유도된 움직임과 노인/젊은이에 대한 암묵적 태도 - 마우스 추적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 205-223.
- 연합뉴스 (2008. 2. 11). “<전문가들 “초기대응 미숙이 송례문 전소 불리”>”,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_D&mid=sec&sid1=103&oid=001&aid=0001954630.
- 허태균 (2015).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 - 어쩌다 한국인. 서울: 중앙book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gh, J. A. & Chartrand, T. L. (2000). The mind in the middle: A practical guide to priming and automaticity research. In H. Reis & C. Judd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pp. 311-34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kin, E., Waksak, C. J., Trope, Y., & Novemsky, N. (2014). Why Feasibility Matters More to Gift Receivers than to Givers: A Construal-Level Approach to Gift Giv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 169-182.
- Byrnes, J. P., Miller, D. C., Schafer, W. D. (1999). Gender differences in risk taking: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25, 367-383.
- Celsi, R. L., & Olson, J. C. (1988). The role of involvement in attention and comprehension proces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210-224.
- Dale, R, Kehoe, C. E., & Spivey, M. J. (2009). Graded motor responses in the time course of categorizing atypical exemplars. *Memory & Cognition*, 35, 15-28.
- Doney, P. M., & Armstrong G. M. (1996). Effects of accountability on symbolic information search and information analysis by organizational buyer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4, 57-65.
- Fishbach, A., Ratner, R. K., & Zhang, Y.

- (2011). Inherently Loyal or Easily Bored?: Nonconscious Activation of Consistency versus Variety-Seeking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1, 38-48.
- Freeman, J. B., & Ambady, N. (2009). Motions of the hand expose the partial and the parallel activation of stereotypes. *Psychological Science*, 20, 1183-1188.
- Freeman, J. B., & Ambady, N. (2010). Mouse-Tracker: Software for studying real-time mental processing using a computer mouse-tracking method. *Behavior Research Methods*, 42, 226-241.
- Frost, R. O., & Show, D. L. (1993).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compulsive indecisive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683-692.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1029-1046.
- Graham, J., Nosek, B. A., Haidt, J., Iyer, R., Koleva, S., & Ditto, P. H.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366-385.
- Haidt, J., & Graham, J. (2007).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20, 98-116.
- Haidt, J., & Joseph, C. (2007). The moral mind: How five sets of innate intuitions guide the development if many culture-specific virtues, and perhaps even modules. In P. Carruthers, S. Laurence, & S. Stich (Eds.), *The innate mind* (Vol. 3, pp. 367-39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n, D., Duhachek, A., & Agrawal, N. (2014). Emotions Shape Decisions through Construal Level: The Case of Guilt and Sha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 1047-1064.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aynes, G. A. (2009). 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choice overload phenomenon: The effect of number of options and time pressure on decision difficulty and satisfaction. *Psychology & Marketing*, 26, 204-212.
- Howard-Pitney, B., Borgida, E., & Omoto, A. M. (1986). Personal Involvement: An Examination of Processing Differences. *Social Cognition*, 4, 39-57.
- Iyengar, S., & Lepper, M. (2000). When choice is demotivating: Can one desire too much of a good t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995-1006.
- Iyengar, S., Wells, R. E., & Schwartz, B. (2006). Doing better but feeling worse. *Psychological Science*, 17, 143-150.
- Jeges, O. (2014). 결정장애 세대[Generation Maybe]. (강희진 역). 미래의 창.
- Lerner, J. S., & Tetlock, P. E. (1999).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255-275.
- Ma, J., & Roese, N. J. (2014). The maximizing mind-se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 71-92.
- Maddux, W. W., & Yuki, M. (2006). The “ripple effect”: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of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669-683.

- Nenkov, G. Y., Morrin, M., Ward, A., Schwartz, B., & Hulland, J. (2008). A short form for the Maximization Scal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3, 371-388.
- Ng, A. H., & Hynie, M. (2014). Cultural differences in indecisiveness: The role of naïve dialec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 45-50.
- Ng, A. H., & Hynie, M. (2016). Naïve dialecticism and indecisiveness: Mediating mechanism and downstream consequenc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7, 263-276.
- Nordstrom, C. R., Williams, K. B., & LeBreton, F. M. (1996). The effect of cognitive load on the processing of employment selection inform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305-318.
- Oyserman, D., & Lee, S. W. S. (2008). Perspective on culture: Effects of priming cultural syndromes on cogni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across cultures* (pp. 237-265). San Diego: Academic Press.
- Parker, A. M., Bruin, W. B., & Fischhoff, B. (2007). Maximizers versus satisfiers: Decision-making styles, competence, and outcome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2, 342-350.
- Poggione, S. (2004).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in state legislators' policy preferenc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7, 305-314.
- Powell, M., & Ansic, D. (1997). Gender differences in risk behaviour in financial decision-making: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605-628.
- Raghunathan, R., & Pham, M. T. (1999). All Negative Moods Are Not Equal: Motivational Influences of Anxiety and Sadness on Decis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9, 56-77.
- Saka, N.,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 3-20.
- Schwartz, B. (2004). 선택의 패러독스[*The paradox of choice*]. (형선희 역). 서울: 웅진닷컴.
- Shah, A. K., & Oppenheimer, D. M. (2008). Heuristics made easy: An effort-reduction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34, 207-222.
- Trope, Y., Liberman, N.,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 83-95.
- Weaver, K., Daniloski, K., Schwarz, N., & Cootone, K. (2015).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for maximizers and satisfiers: Wanting the best or wanting to be the best?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5, 372-388.
- Wells, G. L., Petty, L. E., Harkins, S. G., Kagehiro, D., & Harvey, J. H. (1977). Anticipated discussion of interpretation eliminates actor-observer differenc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Sociometry*, 40, 247-253.
- Yu, Z., Wang, F., Wang, D., & Bastin, M. (2012). Beyond reaction times: Incorporating mouse-tracking measures into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examine its underlying

- process. *Social Cognition*, 30, 289-306.
- Zhang, Y., & Mittal, V. (2005). Decision difficulty: Effects of procedural and outcome accountabil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 465-472.

논문 투고일 : 2017. 09. 07

1 차 심사일 : 2017. 09. 11

게재 확정일 : 2017. 11. 28

Predicting Ripple Effect Affects Difficulty of Decision-Making: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Accountability for Results of Decision-Making

Minjo Lee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research, it was examined whether predicting the ripple effects of events influences decision-making difficulty. In addition, it was examined whether perceived accountability for decision-making results mediates the relation above. In Study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policy decision-making vignettes and were asked to report on the ripple effects of their policy decisions as well as on the difficulty of making the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e bigger the expected ripple effects, the greater difficulty participants felt in making policy decisions. In Study 2, ripple effect magnitudes were experimentally manipulated such that participants were led to predict big ripple effects in one condition and relatively small ripple effects in another condi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participants predicting bigger ripple effects would perceive decision-making to be more difficult than participants predicting smaller ripple effects. Whether this relation would be mediated by perceived personal accountability for the results of decision-making was also examined. Consistent with expectations, it was found that in the moral domains of Harm/care, Fairness/reciprocity, and Ingroup/loyalty, participants predicting bigger ripple effects reported more difficult decision-making than their counterparts. The relation above was mediated by perceived personal accountability for decision-making results only in the domain of Ingroup/loyalty. In combinat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bigger predicted ripple effects contributed to greater decision-making difficulty. In addition, participants felt mo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their decisions when predicting bigger ripple effects, which led them to feel greater decision-making difficulty in the domain of Ingroup/loyalt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redicting ripple effect, perceived difficulty, perceived accountability, policy decision-making, moral decision-making